

50년 송풍기 외길 금성풍력 등 10개社 '명문장수기업' 선정

비행기 날개 착안 '에어포일팬' 개발
美 성능 인증받아… 해외시장 공략
중기부, 올해 경쟁률 9.6대 1 기록
명문장수기업 선정 후 매출 22%↑

금성풍력은 국내 1위 산업용 송풍기 회사다.

창업주인 정동기 회장은 1975년 당시 서울 입정동에서 '동일공사'로 간판을 내걸고 송풍기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금성풍력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금성풍력의 송풍기 역사가 대한민국 송풍기 역사다. 비행기 날개에서 착안한 원심팬인 에어포일팬(AirFoil Fan)을 개발,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풍기 핵심부품인 날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고 효율에 소음이 현저히 적었던 에어포일팬은 금성풍력의 효자 상품이 됐다.

이후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 AMCA(국제 공조기기협회)로부터 Air Performance(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2009년과 2017년에는 AMCA로부터 Sound & Air Performance(소음&성능) 인증, 효율



서울 상암동 DMCT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원쪽 7번째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동 앙회장이 명문장수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업, 유니코정밀화학, 일진코스메틱, 종양운수, 하이메, KTE, 명화공업이 제10회 명문장수기업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경우 9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은 9.6대1을 기록했다. 올해 10곳 추가로 '명문장수기업'은 총 63개사로 늘었다.

중기부 분석 결과 지난해까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53개사의 평균 업력은 58년이다. 20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205억원이다. 특히 명문장수기업 선정 전과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비교 시 평균 22%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 뽑힌 매일식품과 이듬해 선정된 화신볼트산업은 매출액이 100% 이상, 고용인원은 50% 이상 증가하는 눈에 띠는 성과를 거뒀다.

한성숙 장관은 "오랜 기간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경제의 토대를 지켜온 명문장수기업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100년 기업"이라면서 "앞으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기업승계 과정의 애로 해소 등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등급인증(FEG)을 각각 받았다.

금성풍력은 이같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송풍기 시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해외시장 공략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회사는 정형권 대표가 부친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이끌고 있다.

서울 입정동의 자그마한 공간에서 시작한 금성풍력은 이후 구로동(80년대) → 인천 남동공단(90년대)을 거쳐 현재의 충남 제2아산테크노밸리에 자리잡기까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2~3배씩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421억원, 임직원은 115명에 이른다.

'업력 50년'의 금성풍력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25년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정형권 대표는 "회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아버지와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50년간

끈기있게 한우물을 파 오신 것에 자식으로서 존경과 감사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제품을 통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도 계율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금성풍력 외에도 광덕에이엔티, 대한과학, 삼창주철

기아 등 16곳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공정위, 우수기업 포상식
공정거래 확립유공자 7명 장관표창

기아, 대동, SK인텔리스, 두산밥캣 코리아 등 16개사가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에선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했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

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 인텔리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은 두산밥캣코리아, 불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이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 한해 동안 협력사와 상생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 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별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 이병원 제2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동국제강 '디-메가빔' 구조 안정성 인증

대형 용접형강 업계 첫 인정받아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자사 대형 용접형강 '디-메가빔'이 업계 최초로 한국강구조학회 구조성능평가에서 구조 안정성을 인정받아 기술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디-메가빔은 동국제강이 지난 4월 초도 생산한 맞춤형 형강 제품이다. 이탈리아 코립페스사의 최신 설비를 통해 후판을 형강 모양으로 용접해 제작하며, 정형화된 규격 없이 고객이 원하는

는 치수대로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m급 초대형 단위 생산이 가능해 '메가'라는 이름을 붙였다. H형강 기준 최소 150mm × 300mm부터 최대 3000mm × 1250mm까지 폭넓은 규격을 구현할 수 있다.

대형 용접 형강은 데이터센터·플랜트·물류센터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안정성과 공간 효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철강재로 주목받고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지난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에서 진행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 등 中企 대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회공헌 등 유공자 50명 선정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에서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가 사회공헌 분야 수상자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최가손씨 최권근 대표가 소상공인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

서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소상공인 ▲규제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총 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영수 대표는 "매출액의 1%를 지역사회에 희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임직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권근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지만 이를 참고

이겨냈으며 채워진 소상공인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며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실질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R&D·마케팅… 국내업계 첫 보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 및 개조·개발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 보유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3사업장에서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군 장비를 임차해 전시회 참가나 R&D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유동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자체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수출 품목인 K9A1, 포탄 완전 자동화가 추진 중인 K9A2, 보병전투장갑 차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자사 명의로 확보하게 됐다.

/유혜온 기자